

2005. 4. 26.

2005년도 해외연수 보고서

○ 기 간 : 2005. 2. 25 ~ 3. 6(7박 10일간)

○ 연수국 : 뉴질랜드 · 호주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 | |
|---------------------------------|----|
| I. 보고서 작성 방향 | 1 |
| II. 해외연수개요 | |
| 1. 연수대상지 선정사유 및 연수방향 | 1 |
| 2. 연수기간 및 일정 | 1 |
| 3. 연수단 인적사항 | 1 |
| III. 연수국의 주요현황 | |
| 1. 뉴질랜드 | 2 |
| 2. 호 주 | 4 |
| IV. 일정별 · 방문지별 주요연수내용 | |
| 1. 뉴질랜드 편 | 5 |
| 2. 호 주 편 | 15 |
| V. 뉴질랜드 · 호주 연수자로서 알아두어야할 상식 .. | 19 |
| VI. 우리군 시책 반영(벤치마킹)과제 | 20 |
| VII. 맺 음 말 | 23 |
| VIII. 사진기록 『붙임3』 | 28 |

I. 보고서 작성 방향

- 연수보고서는 일반적인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여행일정별 가이드가 안내한 사항과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단 일행 전원이 잘 운영됐다고 평가하는 연수당일 취침전 연수단이 보고 느낀 소감과 토의 내용들을 집약해서 기행문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음.
-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각종 지표와 통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인터넷 등 최근 자료로 쉽게 접할 수 있어 가능한 생략하였으며, 다만 연수국의 주요현황은 인터넷 등 참고문헌에서 인용하였음.

II. 해외연수 개요

1. 연수대상지 선정사유 및 연수방향

1. 선진화된 친환경적 농업군으로서의 발전 도모와 관광자원 상품화 방안모색

우리 군은 농업을 주요생산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농사방법으로는 계속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 선진화된 친환경적 농업군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되고 특히, 현재 계절적으로 재배중인 농작물 관리상태의 확인이 가능한 뉴질랜드와 호주를 연수대상국으로 선정하였음.

2. 농산물 시설과 생산형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실태 파악

연수 시 습득한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우수한 사례는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수 시 현지방문 대상지도 농산물 생산형태 및 농업관련시설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한 시설위주로 선정하였음.

3. 연수 시 각종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지 중점 견학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철저

연수대상국에 대한 관련 자료는 사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이를 습득토록 하고, 각종 필요자료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관리인 또는 가이드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키로 하였음.

2. 연수기간 및 연수일정

- 2005. 2. 25(금) ~ 3. 6(일) <7박 10일>
- 연수 일정 : 『붙임 1』

3. 연수단 인적사항 : 『붙임 2』

Ⅲ. 연수국(뉴질랜드·호주)의 주요현황

1. 뉴질랜드 : 아오테아로(Aotearo)

뉴질랜드는 약 1,000년 전에 새로운 땅을 찾아 별을 따라 왔던 태평양 원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나라로 그들을 마오리, 원주민 말로 '탕가타 휘누아' 즉 '대지의 인간'이라는 뜻이며 최초의 마오리인들이 안개가 자욱하고 잡목이 무성한 산들을 보고 그곳을 아오테아로아(Aotearoa), 즉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 불렀다고 함.

오늘날의 뉴질랜드는 인구가 현재 약 400만명 정도로 80%정도는 백인계이고 약 14%정도가 마오리원주민이며, 기타 폴리네시아인, 아시아계 이주민 등으로, 이민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인구의 74%가 북섬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연수단의 탑승기가 첫 착륙한 오클랜드는 남서태평양에 위치하며, 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이상이 살고 있고, 나라 전체 면적이 약 27만 km²로서 한반도보다 5만km² 넓고, 남한의 약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영국과 그 면적이 비슷함.

연혁을 살펴보면 1,000여년 전 동 폴리네시아인들이 건너와 정착한 곳으로, 서기 1642년 최초의 유럽 항해자들이 이 땅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마오리족들은 기후가 따뜻한 북섬 상단에서 살았음. 그해 네덜란드인 아벨타스만(Abel Tasman)이 해변에 닿을 내리고 이 나라 이름을 Staten Landt라고 명했으며 나중에 Nieuw Zeeland로 바뀌었음.

영국인 제임스 쿡(James Cook)은 1769년에 이 곳에 들어와 해안을 주항하며 마오리인과 교역을 했으며, 이 땅을 영국땅이라고 주장했다. 물개사냥꾼과 고래사냥꾼들이 그 뒤를 이었으며 1814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1840년 당시의 유럽인구는 2,000명 마오리 인구는 10만명이었음.

1840년 약 500명의 족장들이 서명한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마오리족, 통치권은 영국 황실이 갖는 것으로 마오리인이나 백인 모두에게 그 조약은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특히 뉴질랜드는 국제무대에서 확실한 입지를 지닌 성실한 국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 뉴질랜드는 환경보호, 무역 자율화, 여

성과 원주민들의 권리, 군축 및 비무장에 관한 국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87년도에 비핵지대가 되었음.

뉴질랜드의 헌법은 국회법 조항, 사법 판결 법규 및 행정시행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뉴질랜드에는 독자적인 성문헌법 기록이 없으며, 정부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로서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18세가 되면 모든 시민들이나 영주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됨.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특성으로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어 계절에 따른 기온의 차가 심하지 않은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2도 정도로 기후는 온화하고 쾌적하며 뚜렷한 계절적 대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반대의 계절을 보여, 1~2월이 여름이고 7~8월은 겨울로써 가장 춥고 우기에 해당함.

남섬은 북섬에 비하여 산이 많으며, Southern Alps가 전 섬의 길이를 이루고 있고 해발 2,300m 이상 되는 산이 223개에 달하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Mt. Cook으로 3,754m이며, 가장 큰 강은 와이카토 강으로 그 길이가 425Km임.

뉴질랜드는 웅장한 남 알프스 산맥과 깨끗한 강, 그리고 싱그러운 천연림과 비옥한 저지의 목초지등이 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로 지구상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거대한 땅덩어리였음. 이곳의 많은 동식물은 쥐라기(Jurassic)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특징 때문에 뉴질랜드는 지질학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세계 최초'라는 말은 뉴질랜드인에게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닌 것으로

1.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세계 최초의 나라이며,
2. 하루 8시간 노동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고,
3.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며,
4. 어네스트 루더포드(Ernest Rutherford)경은 세계최초로 원자의 비밀을 발견했고,
5.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경은 현지안내인 텐징(Tensing)의 도움을 받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였음.
6. 요트맨 피터 블레이크 경(Peter Blake)은 세계최초로 논-스톱 요트 세계일주를 한 기록 보유자임.

2. 호주(AUSTRALIA)

호주는 단일국가로서 가장 큰 대륙섬인 국가로 면적 7백 70만km², 폭이 4천km, 남북의 길이는 3천km에 달하며, 다른 대륙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대륙으로, 전체 면적의 단 2%만이 해발 1000m에 위치해 있을 정도임.

뉴 사우스웨일주 동남부에 위치한 코지우스코(Kosciuszko) 산이 해발 2,228m로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되고, 호주 중앙부에 위치한 에어호수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해변보다 17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복이 심하지 않은 거대한 대륙으로 호주는 완만하게 경사진 고원과 평원으로 되어 있음.

호주 전체를 대략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부 고원지대, 내륙 저지대 그리고 동부지역에 비교적 좁게 발달해 있는 산간지대로 구성되어 있음. 호주 대륙의 1/3이상이 남회귀선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기후는 북부 지역의 열대성 기후에서 남동부 지역의 온대기후까지 있으며 대부분의 내륙지역은 매우 건조함.

호주의 인구는 1천 8백만명으로 인구 대부분이 동부 및 동남부 해안 평원 지역을 따라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륙 오지에 발달된 도시들은 대부분이 광업중심지로 되어 있음.

1770년 8월 캡틴 쿡에 의해 발견된 호주는 영국 국토가 되었으며, 초기에는 본토의 죄수 유형지로 이용되었으나 1793년부터 자유이민이 시작된 이후 인구와 경제력이 급속하게 신장되어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자치를 거쳐 1926년 완전 독립하였음.

영토로 판단하면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그리고 브라질 다음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밀도는 매우 낮음. 호주 연방은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주경계선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됨. 가장 큰 주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서유럽과 거의 같은 면적임.

내륙에서 가장 높은 지대는 코지우스코 산이지만 이 산의 높이도 2,228m 밖에 안되며, 전체 지형은 낮고 생성연대가 오래된 지형임. 구름들이 산을 거쳐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국토의 대부분은 적은 강우량을 가지고 있으나, 관개시설이 잘되어 있는 비옥한 농지를 가져 세계의 곡창지역이기도 함. 그러나 토양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잠시 비옥해진 땅도 오랜 기간동안의 방치로 인하여 빗물에 영양분이 쓸려 내려가서 다시 험사리 사막으로 변해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IV. 일정별 · 방문지별 주요 연수내용

[뉴질랜드편]

□ 2일차 2.26(토) 11:45경

KE 823편으로 한국과 약 9,500km 떨어진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큰 섬 오클랜드에 도착함.

(1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소 우리나라와는 3시간 시차지만 썸머타임으로 4시간의 시차였음.)

나라가 아름다워 여왕의 나라라고도 하는 뉴질랜드는 가을로 접어들어 미류나무가 단풍이 들려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중이었음.

첫 대면한 뉴질랜드 현지 가이드(이형철)는 가깝지 않은 땅이기에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어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보이고 설명하겠다고 의욕적인 시작에서 『뉴질랜드를 가보지 않고 이야기 하지마라』면서 뉴질랜드는 동물의 왕국,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천국으로 자기가 생산한 최고급 상품은 자기들이 소비함으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국민이라고 소개함.

우리는 한마을에서 가구당 1-2두 사육해도 환경오염, 폐수 걱정을 해야 하지만 뉴질랜드는 광활한 평원위에 4쿼터로 나누어 이동시키며 방목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염원이 분해되어 거름이 된다 함.

가공되지 않은 야채 과일 반입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나라임. 그 이유는 뉴질랜드의 60%이상의 주 수입원인 농축산물을 병해충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고 농축수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이나 밀수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함.

이것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아름다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이 나라 국민들의 노력이며 외국의 나무, 농수산물에서 벌레 1마리도 훔치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전염병 예방차원이라며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황소개구리와 베스, 브루길의 폐단을 연상시켰음.

GNP는 US달러로 18,000\$로 욕심 부리지 않는 나라, 태풍이 거의 없고, 산유국이며, 천연가스가 엄청나지만 육지를 개발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으므로 자연파괴를 방지하고, 가능하면 후손에게 자연그대로를 넘기려고 하는 나라, 한마디로 천당 극락이 따로 없는 나라로 설명함.

최고의 깨끗한 유기농법을 생활화하는 낙농국가, 세관원이 아닌 농림수산원에서 음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나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학성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는 나라로서 1차 산업을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함. 이 나라의 제일부자는 2억 평 정도를 소유하고, 사슴 250만두를 사육하여 뉴질랜드의 젓줄 역할을 한다고 함.

◆세계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관람

동굴 내 천정에 붙어 있는 Glow Warm(성냥개비만한 크기 생물체)이란 생물체에서 발하는 금빛과 은빛의 중간 색채를 띤 반딧불로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였음.

또한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 2년간 재수가 좋다는 동굴 내는 석순, 석주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일일 관람인원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무제한적인 관람인으로 인해 퇴색되었다는 우리나라 동굴과 비교가 됨을 느낌. 또한, 동굴 내 생태계 파괴를 우려 사진촬영금지는 물론 정숙하라고,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었음.

◆ 유황과 온천의 도시, 화산폭발로 형성된 로토루아로 이동

폴리네시아인 풀 유황 온천욕은 무좀, 피부병이 바로 치유되는 효능이 있는 곳으로 설명함.

온천시설은 풀장과 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남녀 공용으로 풀장은 실내시설로 온천탕은 야외에 바다와 접하도록 설치되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특히 호텔 내 온천장은 가족끼리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탕이 여러 곳에 설치 되어 있었음.

2.27(일)(3일차)

◆아그로돔 공연장 방문

뉴질랜드에서 사육하고 있는 메리노의 19종의 양들을 대상으로 무대위에서 양몰이 쇼, 양털 깎기 쇼 등을 시연하였음. 관광객들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하나의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었음. 양몰이 개의 종류는 2종으로 짓지 않고 눈으로 쫓아서 양몰이를 하는 스트롱 아이독(실제 실험)과 짓으면서 양을 모는 헌트웨이 독(개)이 있었음. 수컷의 양 한마리가 암컷 양 150-200마리 거느린다고 하며, 최고 품질의 양털은 메리노종으로 취급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첫인상은 대개가 양털, 양모사업이며, 높은 질로 최고라 평가 받아서 그런지 부드럽고 편안하다고 하며, 뉴질랜드에서는 100% 양털 아닌 것이 없고, 100% 양털 아닌 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양털을 안 쓸 이유가 없는 정직한 나라이자 국민이라 함.

(양털의 구분은 인화성이 없고, 냄새는 누린내가 남을 실제 실험하여 보았음)
낙타과의 알파카 동물은 부드러운 특징으로 인해 침대 씨트용으로 이용한다 함.

◆ 와카레와레와 :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로토루아에 오면 이걸 봐야 한다고 강조되는 곳으로 화산암의 용암 즉 화강암이 폭발해서 생긴 땅으로, 땅의 열에 의해 끓다가 좁은 구멍으로 수증기가 솟아나고, 진흙열탕, 유황냄새가 물씬 풍기며 안개처럼 골짜기를 뒤 덮은 수증기는 이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넉넉함을 과시하였음.

산책로 옆의 간헐천을 구경하기 위하여 정해진 산책로를 잠시 이탈하자 즉각 현지 청경의 제지가 있었음. 엄격한 관광자원 관리실태를 엿볼 수 있었음.

그 곳에는 마오리 원주민간 전쟁에서 패전한 부족의 가장 용감한 장수를 잡아 발을 묶어 산채로 웅덩이에 빠뜨린 뒤 익혀 먹었다는 웅덩이가 있었음.

◆ 마오리 민속쇼 및 향이디너(땅에서 나온 김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란 석식)

우리말 『안녕하세요』를 원주민어로 “키아오라”, 또는 “게오라”로 인사하자 반갑게 맞이함.

마오리 민속쇼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뜻에서 음악에 맞추어 공과 스틱을 이용

해서 돌리기 하는 식과 손목을 이용한 춤을 시연하였으나 너무 단조롭고 후졌다는 평가.

2.28(월)(4일차)

◆ 레드우드(Redwoods) 포레스트 방문

이곳의 나무는 25-30년 되면 가구 보다는 재질이 좋지 않아 건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줄을 그은 듯한 직선 크기가 50m 정도의 나무가 밀림을 이루고 있었음.

비가 약간씩 내리는 곳은 날로서 숲 속은 어둑하였으며, 잘 가꾸어진 숲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현지주민들이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었음.

지면은 낙엽퇴적층이 쌓여 푹신한 느낌을 받았으며, 나무의 성장속도가 우리보다 5~7년 빠르다고 함.

정부에서 체계적인 숲 관리로 인하여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도 주요 자원으로, 산으로 구성된 우리 거창군에 자라는 숲과는 대조적인 구분이 되었음.

◆ 파라다이스 벨리 무지개 송어 양식장 관람

관광지로 개발된 이 곳은 송어가 흐르는 냇물에 그냥 자라고 있으며, 숲으로 조성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물이 흐르지 않는 웅덩이에는 80년산 장어들이 있었음.(이곳에서는 장어를 먹지 않는다고 함)

자그마한 자연도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뉴질랜드의 관광정책을 엿볼 수 있었음.

◆ 부족의 마레이 신전

전통적인 가옥과 신전을 재현한 시설로서 목재만으로 건축한 시설임. 건물 중 빨간 색칠은 귀신이나 잡신을 쫓기 위함이 아니고, 많이 흘리면 죽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피 색깔을 상징한다고 함.

◆ 한국인 이민자의 아산 농장 방문

아산 목장 집은 한국인 이민인이 식당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 곳으로 40만평 규모의 목장에 550두의 젖소 목축을 하고 있었음. 농장의 풀 깎기 등은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고 연간 소득은 젖소 마리당 1,000\$ 내지 1,400\$로 정부지원은

없고, 20%정도가 정부주식으로 보면 된다 함.

잘 지어진 집 주위에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주변에는 꽃과 과일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벤츠와 국산 체어맨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 내에는 별도의 휴게시설과 당구대등이 있어 성공적인 이민자로서의 삶의 풍요로움이 묻어났음. 우리일행은 이들 이민부부의 생활이 우리나라의 유행가 “저 푸른 초원 위에”와 같다는 공통된 의견을 느꼈음.

우리일행들은 실제 초지로 들어가 초지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오클랜드로 이동

자연경치 보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 차를 타고 평원을 누비면 2시간 단위로 경치가 바뀌는 나라, 광활한 땅에 골프장이 많으나 사용자가 많지 않고, 부킹도, 캐디도 필요 없으며, 또 복잡하지 않아 대통령이 혼자 골프를 치는 격이라고 가이드는 설명함.

뉴질랜드에서 한국은 몰라도 LG와 현대, 삼성은 안다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랑함.

◆에덴동산, 하버브릿지, 와이테마 항만 등 운영실태

오클랜드의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에덴동산, 198m 화산폭발로 분화구가 생긴 곳으로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전략의 요충지, 젖소가 이동하면서 동산 내 풀을 뜯어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함.

에덴동산 정상에는 세계 유명도시와의 거리를 동판으로 표시한 지도가 있는데, 우리 한국도 거리가 1만 km로 적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퇴색되어 보이지 않았음.

시내에 소재한 오클랜드 대학은 도로와 건물이 접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열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이 나라에서는 영국식 영향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캠퍼스(마당=교정)가 없다 함.

◆저녁 식사 후 19:30 남섬인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현지에서 기다리던 가이드(충청 서천 고향인 이형철씨)는 50분이나 연착되어 20:20분에 도착하자, 국내선 비행기는 일찍 오는 법이 없으면서 일행을 맞이함.

(화물편으로 보낸 몇 개의 가방이 도착되지 아니하여 분실신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음 비행기 편으로 화물이 도착하였음. 아마 그 이유는 식료품, 팡과리 등의 검역 때문인 것으로, 검역과정과 절차는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았음)

10분정도 소요되는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고 남섬에서의 일정을 시작함.

3. 1(화)(5일차)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가이드의 이튿날 맞은 좋은 인상에 우리 일행의 기억을 요구하자, 자기가 안내한 명단은 10년간 보관한다며 다시 연락이 된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 해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함.

평원을 따라 1시간여 이동하니 농가가 보였으며, 농사를 짓는데 자동차 내지는 경비행기로 이동한다고 함. 눈 덮인 산 만년설, 옛날 짚신시절 생각도 못한 긴 여정, 지금은 운송, 정보시스템이 대단히 발달하여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이지만 역시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공항입구의 현대 차 간판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의 신장을 느끼고, 현지 한국인의 자부심이라 함.

아름다운 땅 남섬,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손이 닿지 않는 무인도 땅, 울창한 밀림지역, 새들의 천국, 지상낙원, 개척자가 10척의 카누를 타고 찾은 땅으로 그 당시 글이 없어 구전으로 전해진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함.

700년 전 원주민이 이주해서 모아새(타조만한 크기로 한 마리 잡으면 온 가족이 포식했다는 새)와 200년간 식용으로 하다보니 멸종해 버려 원주민은 고구마로 연명했다함.

1870년경부터 밀림지역을 불을 질러 낙농하기 시작했고, 한국과는 교역량 6위,

빙하의 얼음물은 광물질로 미네랄과 석회질도 섞여 있어 빛을 받으면 옥색이 되고 일명 빙하의 눈물이라고도 함.

일반 관광객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마운틴 쿡의 만년설을 멀리서 바라보며 퀸즈타운으로 이동함.

푸카키 호수, 목축업을 상징하는 양치기의 개 동상, 목동들을 위한 초대교회 등은 자연과 함께하는 조형물로서 단순하지만 관광 조형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었음.

호수의 깊이가 300-390m정도로 호수 7개가 수로로 연결되어 9개 발전소를 개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전기료도 경쟁을 하니까 세일이 된다함. 개인이 개설하였다는 도로와 호수에서, 호수수로 전장길이가 54km로서 이 또한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또한 지름이 4m라는 송수관이 바깥으로 장엄하게 길게 뻗어 있었으며, 그 크기는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함.

이 나라의 전력은 수력 70%, 화력 20%, 기타 10% 정도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 큰 호수 주위와 발전소에는 상주자도 청경도 없이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서 컴퓨터로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함.

남반부의 최고 높은 산! 알프스산맥은 길이 550km, 깊이 3,000m, 1,700m크기의 얼음덩이가 흘러내리고 있음.

알프스 산맥에는 등산객 2,000여명이 묻혀 있으며, 30년마다 1명 정도로 흘러내리는 얼음물에서 찾는 다고 함.

헬리콥터 없으면 목축을 할 수 없는 나라, 목축을 하려면 축산과 6년을 졸업하여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한사람 평균 7백만 평, 양 1만 마리를 경비행기를 타고 목축을 하고 있음.

먹는 음식에는 농약을 치지 않는 나라, 가는 곳마다 각종 세계유명의 CF촬영장, 반지의 제왕, 우림지역으로 쥘라기공원 촬영지등 세계 명화의 촬영지가 즐

비한 나라였음.

지금은 싸도 나중에는 세계1위로 깨끗한 만큼 키우기만 잘 하면 전 세계인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속이는 사람이 없는 신용의 나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엄한 벌은

- 1.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살인자 보다 더 중벌
- 2.성 희롱은 가장 무서운 벌로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함.
- 3.세금을 탈세한 자를 중벌 한다고 함.

3. 2(수)(6일차)

우리나라는 63빌딩 등 고층이 많지만 이 나라는 토지가 풍족하여 고작 3-4층 정도만 되어도 높은 건물로 인식하고 있었음.

1970년도에는 뉴질랜드가 세계 3번째 잘 사는 나라였으나,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근간과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지금은 많이 후퇴한 상태라고 함.

암반을 뚫어 끌어 올리는 물이 자연그대로 깨끗하고 풍부함으로 맥주, 와인에 대해 최고로 자부심을 갖는 나라.

◆크롬웰 조형물과 농산물 판매 센터

과일 판매 센터와 연접한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농산물홍보를 위한 조형물은 일행 모두가 색다른 느낌을 갖게 하였음.

우리 거창군도 앞으로 광고판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좋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지 농산물판매센터는 과일별로 진열을 하고 무게별 가격표시를 하여 누구나 필요한 만큼 구입토록 하였음. 사과와 경우에도 박스형태의 판매는 없었음.

과일은 방문객이 시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식코너를 마련 풍성히 제공하여 주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껍질채 먹어도 좋다는 설명이 있었음.

우리도 사과 등을 구입하여 맛을 보았는데 사과 및 포도의 맛과 품질상태가 우리나라 제품보다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 친환경적인 제품만 생산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피요르랜드 국립공원

밀포드로 가는 길 양편 어느 곳이나 풍경은 정글처럼 뺨뺨하고 넝쿨식물인 장미와 같이 긴 나무들로 꽉 차 있는 밀림지역으로 이곳에서 쥐라기공원 촬영 장소로 이용되었다 함.

도로변에 위치한 미러레이크(Mirror Lake)는 작은 호수에 비친 그림자를 관광 자원화(그림자가 마치 물 밑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꽃말의 글씨가 물에 그대로 비침)하여 탐방시설로 꾸민 것으로 작은 것에서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울 점으로 느꼈음.

◆ 밀포드 사운드

밀포드사운드는 남섬에서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관광거리중의 하나로서 모든 관광객이 거쳐가는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음. 밀포드사운드는 200만년전 빙하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협곡으로 협곡 곳곳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유람선을 이용하여 관광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절경을 육로를 통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1930년에 밀포드로드와 1935년에 호머터널을 착공한 이 나라국민들의 관광안목에 대하여는 놀라운 느낌을 받았음. 밀포드사운드는 월드헤리티지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음.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 큰산, 밀림지역, 심오한 계곡, 빙하, 누덕누덕 헤어진 해안가 등, 5대 요소를 갖추어야 함, 즉 모든 것을 갖춘 것이라는 뜻임.

뉴질랜드는 모든 관광시설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왜 입장료를 받지 않느냐는 일행의 질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순간 돈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왜 입장료를 받겠냐고 답하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관광자원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그들의 국민성을 느끼게 하였음.

◆ 퀸즈타운

금과 모래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곳이며, 여왕이 와서 살아야 할 곳이라 퀸즈타운으로 불림.

협곡이 350Km정도여서 래프팅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다른 나라에서 모방시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또 높은 산으로 1년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임. 퀸즈타운에서 멀리 리마카블산이 보이는데 이가 바로 반지의 제왕 촬영지라고

하였으며, 흐르는 계곡이 역류하는 착시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음.

◆번지점프지역

퀸즈타운 지역 내 있는 번지점프 지역은 쇠사슬로 성인식을 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팬티 고무줄을 밧줄로 하여 뛰어 내리는 곳으로 세계최초의 번지점프를 개발한 장소라고 함.

1회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어야 하나 많은 관광객이 번지점프를 즐기고 있었으며,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부담 없이 촬영장면을 녹화한 CD와 사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인효과를 내고 있었음.

초창기에는 번지점프시설 뿐이었으나 최근 휴게시설과 판매시설을 건설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함.

우리 일행 중 정종기의원이 기념으로 번지점프를 함.

◆와카티보 호수

길이 84km, 깊이 399m, 넓이 9,500만평, 남섬에서 2번째 큰 호수인데 여기서도 뉴질랜드에서는 모터보트를 이용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1인 뉴질랜드 85\$를 75\$로 해서 16인승 정도의 모터보트를 여러 대 운영하고 있었음.

68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6.25참전국으로 고맙다면서 남섬을 수행원과 같이 방문하여 자동차를 옆에 세워 놓고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적시어, 호텔에 가서 물어보니 『이 나라, 낙농 국가가 너무 부럽다. 뉴질랜드의 어린이들은 양젖, 소젖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녹슨 수도꼭지 물로 배를 채워서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말이 보도되어 뉴질랜드 정부에서 홀스타인 천마리를 우리나라에 지원하였지만, 토끼풀이 원인이 되어 가스가 차서 소화불량에 걸림에 따라 토끼풀을 갈아 엮고, 현지의 대관령 목장을 만들었다고 함. 그래서 매일유업의 최초 지분이 뉴질랜드지분이 많이 있다 함.

3. 3(목)(7일차)

뉴질랜드 관광객은 250만 정도로서 한국의 월드컵 40만 명과 비교하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음.

날씨 맑고 상쾌하며, 태풍 없고 축복받은 땅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오늘도 증명할 수 있다는 가이드의 안내에 기대를 하고 출발 함.

여행기간 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말에 “자동차로 20분가도 자기 땅이니,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지만 안 보일 뿐이다.”라는 가이드의 답변을 실감할 수 있었음.

포도밭 앞에 장미를 키우는 지혜?

그 이유는 벌을 유인하기 위함도, 예쁘게 보이려고도 아닌 식물 중 제일 약한 장미에 진딧물이나 병균의 점검을 위한 것이며, 수확 시는 봉지를 벗기지도 않고 기계로 훑어서 따며, 평원 곳곳에 펼쳐진 스프링 쿨러는 이 나라의 넉넉함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음.

오마라마(한국 사투리 오나마나)가는 도중 집을 통째로 트럭에 실어 이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이때 페트로카가 캄보이를 해 주고, 차량의 교통 불편도 사전예고로 우리의 행상이 지나가는 만큼 배려가 있다고 보면 됨.

차량 등록은 우체국에서 하는데 소요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다고 행정이 아주 간편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차량등록시스템도 좀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헤글리공원

헤글리공원은 55만평규모로써 여의도광장의 2/3규모로써 1851-1863년에 시가지내에 조성된 것으로 우리가 찾은 시간이 저녁시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공원 내 수목의 곁가지를 잘라 분쇄기로 갈아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거름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풀의 자람을 억제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함.

3. 4(금)(8일차)

[호주 편]

07:00 NZ 181 편으로 시드니로 향발 08:30 도착(호주와 우리의 시차는 2시간)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 기내승무원은 아줌마들로 하였고, 커피를 신청한 자에겐 맥주를, 물을 신청한 자에게는 주스를 주는 등 서비어스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대한항공의 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음.

◆축복받은 환상의 대륙 호주 소개

공해에 물들지 않은 희망찬 미래의 낙원 호주는 대륙의 길이가 33,000km 정도로 300km를 110일간 돌아야하는 땅, 국민이 국외보다는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나라, 호주를 태고의 대륙, 살아있는 화석, 고산대륙이란 말로 해수면에서 용기작용에 의해 우뚝 솟았다고 소개 함.

호주의 GNP는 96,000\$로 거지가 없고, 가장 잘된 사회보장제도로 실업자 수당이 나오며, 주택보급률은 250%로 주택소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음.

호주 인구 2,700만의 구성비는 영국 혈통이 25%, 역시 이 땅에도 중국인이 280만(10% 넘음)으로 중국의 이민 역사는 영국이민의 역사와 맞먹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단합과 상생으로 호주 상권의 30%를 차지하고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있다 함.

우리가 방문한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주 수도이자, 동시에 호주 최대의 도시로 인구 약 450만 명으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써 그 자태를 과시함.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그리고 시드니 타워와 젊음의 해변 본다이비치와 시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블루마운틴의 장관은 유명하다고 함.

담이 낮아 집 앞 쉼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원이나 수영장이 집 뒤편에 있음. 국가상징동물이 캥거루, 코알라(아기주머니가 있어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원리), 또 코알라는 타조조상으로 날개가 없다 함.

호주도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관광지과 고속도로등 통행료가 없는 나라였으며, 또한 환경과 관광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환경청과 관광청은 자체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등 파워가 제일 강하며, 변호사나 검사보다 노동자를

중시하며, 공무원도 직종별 차등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호주의 특산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로얄젤리와 스쿠알렌이 있고, 특히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어연골, 세계 3위의 메리노 양 보유 국가로써 양태반 에센스, 양태반 크림, 슬링 스킨, 어린양자켓 등 양에 관련된 다수의 특산품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음.

골프장은 180개 정도로 한국의 당구장, 과거에 자치기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고, 캐디도 없는 대중스포츠이며, 승마도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 함.

호주 관광청에 근무하는 유정현 가이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관광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함.

가이드는 4대 독자로 87년도에 이민당시 모친이 췌장암으로 서울대병원에서 2년간 2차 수술을 하고 가망이 없어 이민하였으나, 호주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아서 회복중에 있다함. 당시 서울에서 4억 정도의 병원비가 들었는데 호주에는 약도, 병원비도, 주사도 전부 공짜로 생존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선진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메디케어(주민등록 역할)로 안 되는 병은 안과(안경)와 치과, 성형, 엠블란스 제도(80%부담)]

◆페더데일 야생동물원과 블루마운틴 견학

시 외곽지에 소재한 희귀동물원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각종 조류와 포유류 다수가 사육되고 있었음.

사육되는 동물의 대부분이 자그마한 것으로 일부 조류는 울타리 밖에서 관광객이 제공하는 과자류를 받아먹는 인간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쿠알라를 이용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실물을 제공하는 친절함을 느꼈음.

블루마운틴의 궤도 열차는 도르래 원리로 옛날 석탄을 운반했으나 관광객 수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조한 것이라고 함.

총연장 737m, 경사도 평균 52도였고, 경사도가 급한 곳은 거의 수직 느낌이 드는 궤도열차로 채광지역은 원시림이 우거진 밀림상태로 보존하고 있었음.

세 민족 받아서 호주가 발전 못하고 국가적 손실을 주는 나라?

- 1.레바논 : 출생률은 높으나 복지기금이 많이 들어가서 싫어함.
- 2.중국인 : 1명이 이민 오면, 1년 내 전 가족이 이민 다 옴. 현재 280만 이민. 뿔뿔 뿔쳐 다른 민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 3.월남인 : 75년경 패망하여 범죄자들 급증, 빵집설립에 이바지하였으나 빵집 설립에 따른 복지기금 출연이 많다고 함.

또 호주는 석유보다 물 값이 더 비싸다. 물론 화장실 물도, 수도물도 먹을 수 있지만 제조업인 물통 값 때문에 물 값이 비싸다고 보면 됨.

◆하이드공원

런던의 하이드공원을 1/3로 복사했다는 하이드 공원은 중앙을 중심으로 조성된 숲의터널은 멋진 관광상품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우리 거창의 읍민생활공원도 조성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의미가 깊은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하이드 공원 내 로마교황청을 모델로 한 천주교 성당이 있었고, 세계의 불가사의한 일중 성모마리아상이 피눈물 또는 눈물을 흘린 일일 것인데, 작년에 이 곳의 성모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 함.

또 이곳은 교황 2세가 2번 와서 미사를 드렸고, 1922년 화재 시 화가가 그린 유리창이 단 한 장도 파손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함.

3. 5(토)(9일차)

◆오페라하우스 견학

건축가 아닌 아트디자이너 요하누스가 오렌지를 예쁘게 깎은 것에 착안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건축공법이 볼트공법이며, 천장이 ㄷ자형으로 설계되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연 300일 이상 공연한다 함.

연중 계속되는 세계적인 공연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거창국제연극제도 세계적이고, 품격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공감함.

오페라하우스에서 바라보이는 하버브릿지는 길이 1.75km의 아치형 철교로서 세계 2번째 교량인데 미국인이 임대하여 다리 위 인도를 만들어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함.

◆시드니 수족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드니 수족관은 예상과는 달리 관광객이 붐비지 않았으나 바다를 접한 국가로서 다양한 해양 물고기 뿐만아니라 육지 물고기도 배치함으로써 볼거리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노스헤드(북쪽머리)

이 통로를 막으면 시드니항에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로서 태평양 전쟁당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포진지도 관광자원으로 볼거리로 활용하고 있음. 멀리 바삐용의 마지막 촬영장소가 되었다는 절벽이 보였으며, 정부에서 군사지역임으로 허가를 하지 않아 바삐용의 마무리 촬영은 사이판에서 했다고 함.

우리 일행은 짧은 기간의 호주연수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름
20:30 · KE 812편으로 인천 향발 3.6(일) 04:50 도착

V. 뉴질랜드 · 호주의 연수자로서 알아 두어야 할 일반 상식

1. 한국과의 차이점

가. 운전석과 차도의 반대 : 운전석 우측, 좌측통행

나. 하나 둘 손으로 세는 것도 반대(뉴질랜드는 펴면서 센다.)

다. 뉴질랜드는 논이 없다 : 뉴질랜드는 연 중 강수량이 1,200mm인데 이 또한 겨울에 70%가 내려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쌀은 태국, 호주 등에서 수입함)

라. 2차 산업인 제조업, 공장이 거의 없다. 90%이상 수입에 의존하여 라이터도 공짜가 없다, 반면 양털은 공짜로 준다.

- 마. 우리는 늦겨울, 초봄 ☞ 뉴질랜드는 늦여름, 초가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북향집이며,
- 바. 호주, 뉴질랜드는 밤 문화가 없음.

VI. 우리군 시책 반영(벤치마킹)과제

1. 친환경적 농업생산 및 품질인증제 도입

-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확한 과실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육성하고 있음.

우리농업도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면 가격경쟁력과 판로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야할 것임.

벼를 비롯한 사과, 포도 등 과실과 채소류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하여는 거창군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와 함께 향후 일정기간 품질인증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품질인증 마크는 행정에서 도안 인쇄하여 미지정농가가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 각종 보조사업 지원 필요성 검토 철저

- 뉴질랜드와 호주는 1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정부에서의 보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우리군의 경우 농업보조금은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요구하는 자에게만 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향후 농업부문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은 일정기간 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사

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시행토록 해나가야 할 것임.

3. 심는 것에서 가꾸는 형태의 산림정책 변경

- 뉴질랜드의 육림정책은 심은 나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성 있는 재목으로 가꾸는 육림정책을 펼치고 있음.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은 목재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역별 연차별 종합적인 육림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4. 입체적인 광고물 제작설치

- 뉴질랜드의 크롬멜 조형물은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휴게소 변에 공원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시각적, 감각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느꼈음.
거창군에서도 향후 광고물 제작 시 입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변 또는 거창 진입로 변에 소공원을 조성 사과, 포도 등 지역 특산물 조형물을 설치하면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5.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 인구 250만 명의 뉴질랜드에서 연간 4백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찾아 드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기 위한 것임.
우리 거창도 이에 뒤지지 않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있는 만큼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루터 개발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의 개발과 계절별 테마관광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가조온천지구 내 추가적인 시설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거창의 각종 행사는 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제연극제, 아림제, 사이버대회 등 각종 축제 시에 해당 농산물뿐만 아니라 썩 먹인 소고기, 돼지고기와 오미자 가공품 등 지역특산품도 함께 출품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도에서 민간 위탁하여 관리중인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향후 거창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6. 수질오염 저감대책 확대시행

- 뉴질랜드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며, 목초지에서도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켜 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초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파괴된 오존층 보존을 위하여 소의 방귀에 메탄가스가 많다는 이유로 “방귀세” 부과를 검토 중일 정도임.
- 거창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하여는 하천의 수질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하천을 끼고 있는 취락지와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확충은 시급함.

7. 의료수급 확대

- 호주의 복지정책 중 특히 의료부문은 연수과정에서 느낀 것 중 가장 부러워한 것의 하나였음.
호주의 예방의약정책으로 심해상어 뼈를 이용한 칼슘보강제와 치매예방약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호주에는 골다공증과 허리 굽은 사람, 치매환자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수술환자에 대한 무료시술, 사고 발생시에 환자의 신속한 구급을 위하여 헬기 및 벤츠차량을 도입 이용하고 있었음.
이러한 예방의약정책으로 환자수가 줄어들어 1999.3월 기준으로 무려국가 예산이 8천만불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함.

우리 거창군의 현 재정 여건상 호주의 의료지원 수준은 곤란하나 일부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수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8. 신뢰받는 행정구현

- 정부가 약속해서 행한 것은 손해가계 한 적이 없다고 한 가이드 말 즉,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함.
초지 조성비도 주고, 또 폐기시 폐기 비용도 지원하는 사례, 보조 받는 자

만 편중 지원하는 사례, 오히려 관광농원, 농민후계자 등 정부의 특혜를 받고도 정부를 더욱더 불신하는 풍조 등은 우리와 많은 비교가 되므로 우리의 행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VII. 맺음말

금번 뉴질랜드·호주 연수는 연수 목적의 100%효과 달성을 위해서 참여의원 대부분이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평가처럼 연수당일 당일 가진 미팅(Meeting)을 통해 보고 느낀 소감과 우리 군이 접목해야 할 사항들을 집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음.

안내 가이드에 따라 역사와 통계 수치의 정확성 등은 사실여부의 생략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우선 뉴질랜드·호주를 미화한 말들을 살펴보면, 낙농 및 목축, 기타 농업 등 1차 산업을 근간으로 자연생태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세계 최 일류의 농업국과 관광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대상국의 복지정책은 진정한 복지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와 최상의 건강을 내세우는 것으로 풍족함을 느끼게 하였음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육성한 선현들의 지혜가 있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공해가 예상되는 공장유치 등은 설령 부자가 되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유치하지 않는 다는 현실정치, 나라사랑과 미래 후손을 생각하는 선진행정은 우리 일행을 부럽게 했음.

청정환경과 농업부문에서도 우선 그렇게 잘 정비·보존되고 있는 국립공원 등 모든 관광지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 『오면 보게 되고, 알게 되어』 그 사람들이 언젠가 뉴질랜드·호주의 생산제품이, 세계 최고 제품이라 말하는 홍보 대사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자기나라에 돈 투자하러 오는 사람에게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는 대답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확신하는

이들의 현명함을 볼 수 있었음.

또 자기 나라 제품 중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고 따르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신뢰하는 모습에서 성숙된 국민성을 엿볼 수 있었음.

비록 짧지 않은 연수기간 중 느낀 뉴질랜드와 호주의 농업 및 관광정책은 우리 거창군이 앞으로 나아 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수대상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관광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도 좀더 넓은 안목과 높은 식견을 갖는데 매우 유익한 연수활동이라는 것에 다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음.

금번 우리 해외연수단이 체험했던 연수는 동 보고서에서 전술한 우리 군에 반영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푸르고 아름다운 거창군을 전국에서 일등하는 친환경적인 농업군과 일류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는 『우리의 문화를 지금 이 시간부터, 나부터 소중히 아끼고, 가꾸어,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상품이 될 때』 까지, 의회는 의회답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이를 군민전체가 신뢰할 때 성취되는 것이라 확신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함.

『붙임 1』

연수 일정

| 월 일 (요일) | 시 간 | 출 발 지(도착지) | 비 고 |
|------------------|----------------|--|-----|
| 2.25(금) (1일차) | 14:00 | · 파리장성 앞 출발 - 인천도착 -KE 823편 18:30출발 | |
| 2.26(토) (2일차) | 11:45 | · (1시간 정도 소요, 시차 4시간) KE 823편으로 오클랜드 도착 · 점심식사(한국관, 07-824-8306) · 팩트릭스 레스트홈 양로원 방문 · 세계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견학 · 로토루아, 폴리네시아 풀 천연온천 견학 · 저녁식사(Korea Hous : 07-349-3309) · HOTEL : PARK HERITAGE HOTEL(07-348-1189) | |
| 2.27(일) (3일차) | 08:00 | · 아침식사(호텔식) · 아그로돔 양쇼 - 양몰이 쇼, 양털깎기 쇼 관람 농축산 분야 · 점심식사(Mac's Steak House : 07-347-9270) · 와카레와레와 :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진흙 열탕, 파라다이스밸리 무지개 송어 양식장 견학 · 레드우드 포레스트 삼림 방문 견학 · HOTEL:PARK HERITAGE HOTEL(07-348-1189).ROT | |
| 2.28(월) (4일차) | 19:30 20:50 | · 아침식사(호텔식) · 로토루아 시가지 조성사업 현장 견학 · 현지 아산농장 방문 및 점심식사(아산:07-332-5899) · 오클랜드로 이동 · 에덴동산, 하버브릿지, 와이테마 항만 등 운영실태 견학 · 저녁식사(뉴코아 : 09-377-8027) · NZ 553 편으로 오클랜드 출발 ·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 HOTEL : THE ELMS HOTEL(0800-109-910).CHC | |
| 3. 1(월) (5일차) | | · 아침식사(호텔식) · 마운틴 쿡 만년설을 조망하며 퀸즈타운으로 이동 · 점심식사(Pukaki:03-435-0773) · 퀸즈타운으로 이동, 푸카키 호수, 양치기의 개동상, 초대교회 등 견학 · 저녁식사(서울가든 : 03-442-7131) · HOTEL:COPTHORNE LAKEFRONT(03-442-8123).ZQN | |

| 월 일 (요일) | 시 간 | 출 발 지(도착지) | 비 고 |
|-------------------|---|--|-----|
| 3. 2(화) (6일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식사(호텔식) · 호머터널을 경유하여 밀포드사운드로 이동 · 유람선 탑승 피요르드 해안절경 감상 선상 뷔페중식 · 퀸즈타운으로 귀환 · 저녁식사(kim's Restaurant:03-442-5457) · HOTEL:COPTHORNE LAKEFRONT(03-442-8123).ZQN | |
| 3. 3(수) (7일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식사후 오마라마 갈색초원지대를 경유하여 크라이스트처치로 이동 · 번지점프지역 관람, 포도재배지 견학, 과일판매장 방문 · 점심식사(jade Palace:0800-832-888) · 크라이스트처치로 계속 이동 · 저녁식사(한국식당 : 03-377-2716) · HOTEL:GRAND CHANCELLOR SUDIMA(03-358-3139).CHC | |
| 3. 4(목) (8일차) | 07:00 08:30 12:30 18:00 19: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후 공항으로 이동 · NZ 181 편으로 시드니 향발 · NZ 181 편으로 시드니 도착 · 쓰레기 처리장 방문 · 보육시설 방문 · 블루마운틴 견학 - 세자매봉, 에코포인트, 퀘도 열차 탑승 · 점심식사(한식뷔페) · 페더데일 야생 동물원 견학 후 시드니로 이동 · 저녁식사 한식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ACCOR MENZIES | |
| 3. 5(금) (9일차) | 09:00 11:30 18:00 20: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동부 지역 - 본다이비치, 왓슨스베이 등 · MATILDA CRUISES - 시드니 하버 유람선 탑승 및 선상 중식 ·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수족관 등 시드니 시가지 조성 및 정비 실태 견학 · 저녁식사(한식) · 공항으로 이동 · KE 812편으로 인천 향발 | |
| 3. 6(일) (10일차) | 04: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 후 거창 귀향 | |

『붙임 2』

□ 연수자 인적사항 : 8명(의원6명, 직원2명)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소 속 | 비고 |
|----------|-----|-------------------|---------|----|
| 거창군의회 의원 | 정종기 | 거창읍 상림리 133-3 | 총무위원회 | |
| | 신전규 | 거창읍 대평리 1422-22 | 산업건설위원회 | |
| | 이종봉 | 고제면 봉산리 580 | 총무위원회 | |
| | 조선제 | 북상면 월성리 1202 | 산업건설위원회 | |
| | 정연명 | 위천면 장기리 292 | “ | |
| | 신주범 | 가조면 동례리 1319 | 총무위원회 | |
| 수행직원 | 이명규 | 거창읍 대동리 영남빌라 102호 | 총무전문위원 | |
| | 서경용 | 거창읍 상림리 272-32 | 의회사무과 | |

『붙임 3』

뉴질랜드 · 호주 사진첩

(05.2.25 - 3. 6. 7박 10일)



와카레와레와(북섬)!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땅의 열에 의해 끓다가 좁은 구멍으로 물이 솟아나고, 화산암 용암 즉 화강암이 폭발해서 생긴 땅), 진흙열탕 장면.



와카레와레와(북섬)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땅의 열에 의해 수증기가 옛 시골의 연기처럼 끓어, 얼마나 많고 풍부한 온천수가 지하에 매장되었는지를 추정케 하고 있다.



마오리 민속쇼 및 항이디너(북섬)! 땅에서 나온 수증기·열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으로 석식이란 뜻, 평화를 상징한다는 뜻에서 공과 스틱을 이용해서 돌리기 식으로 너무 단조롭고 후졌다는 평가.



북섬 어느 부족의 마레이 신전! 또는 신 모신 사당 즉 신전, 목재만으로 건축. 건물 중 빨간 색칠은 귀신이나 잡신을 쫓기 위함이 아니고, 많이 흘리면 죽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피 색깔을 상징한다고 함.



북섬의 에덴동산! 오uckland의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에덴동산, 198m 화산폭발로 분화구가 생긴 곳.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전략의 요충지, 젓소가 이동하면서 동산 내 풀을 뜯어 잡초를 예취할 필요가 없는 곳. 동산의 정상에는 세계 유명도시를 동상으로 표시한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도에는 각 나라와 거리가 기록되었다 함. 우리 한국도 1만 km로 적혀 있었다고 하여, 찾아 보았으나 지금은 퇴색되어 보이지 않음.



뉴질랜드의 남섬, 밀포드사운드 이동 도중 크롬웰 조형물! 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진에 담음.



피요르랜드 국립공원, 미러 레이크(Mirror Lakes) 호수! 하도 물이 맑아 산의 그림자가 마치 실물처럼 보이고, 물위 꽃말의 글씨가 마치 원형 그대로 물밑에서도 비치고 있다.



오마라마 갈색초원지대! 천년 전의 밀림지역을 목초지로, 또는 낙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마치 주인 없는 땅처럼, 저멀리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고원지대는, 인구가 적고 땅이 넓은 넉넉함을 과시하는 것 같다.



호주 노스헤드(북쪽머리)! 태고의 대륙! 천혜의 요새! 사면이 바다! 온갖 좋은 이름은 모두 붙여진 곳. 저 뒤로 뻘뻘용의 마지막 촬영장소 절벽이 보였으며, 정부에서 군사지역임으로 허가를 하지 않아 뻘뻘용의 마무리 촬영은 사이판에서 했다고 함. 이 통로를 막으면 시드니 항에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지역이라 소개 함.



호주 시드니의 하이드 공원 내! 수십 년 된 나무들이 터널을 형성하여 산림욕을 즐기는 곳



시드니 하이드 공원 내, 로마교황청을 모델로 한 천주교 성당! 교황 2세가 2번 미사를 드린 곳. '22년 화재 시 화가가 그린 유리창이 단 한 장도 파손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함. 세계에서 성모마리아상이 피눈물 또는 눈물을 흘리는 불가사의한 일이 종종 있는데, 작년에 이곳 성모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 함. 아마 그 나라의 흉한 일이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카에다 공격을 예견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함.



오페라하우스! 건축가가 아닌 아트디자이너 요하누스가 오렌지를 예쁘게 깎은 것에 착안, 사업전권을 위임받고 사업을 하다, 사업비 과다로 인해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 됨. 다시 돌아와서 재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하는 예술가의 고집불통은 어쩔 수 없었다 함.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건축공법이 볼트공법이며, 천장이 ㄷ자형으로 설계되어 마이크를 사용치 않는다며, 300일 이상 공연한다함.